



공동체 소식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9월 기도지향

- 류기범(요셉), 신혜경(마리아) 가정
- 김태중(예레미야), 김시연(엘리사벳) 가정

순교자 성월

한국교회는 해마다 구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순교란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과 하늘나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순교자들의 굳센 믿음을 묵상하며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노력합시다.

주간 전례

- 9/23(월) :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사제 기념일
- 9/27(금) :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기념일

본당 야외미사

- 일시 : 10/6(일) 오전 11시
- 장소 : Shawnee Mission Park (Shelter 8)
- ☞ 점심식사 후, 공원 내 걷기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벼운 옷차림과 운동화를 준비하시어 함께 걷고, 경품도 타가기 바랍니다.

평협 회의

- 일시 : 9/22(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회관

구역 회의

- 일시 : 9/29(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회관

기타

- 지난 주일(9/15), 한가위 미사를 위해 애써주신 전례부에 감사드리며, 점심식사를 푸짐하게 마련해 주신 구역분과에도 감사드립니다.
- 9/23(월)부터 10/4(금)까지 주임신부님이 휴가를 가십니다. 평일 미사는 없고, 다음 주일(9/29)은 손님 신부님이 오실 예정입니다.
- 지난 9/17(화) 저녁 7시 미사에, 최복순 마리아 자매님의 세례식과 첫영성체가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이름으로 축하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286	219	502/166	283

주일미사 복사

	항 복사	시종 복사
금주	김태중(예레미야)	차호섭(요셉)
	문예나(요안나)	차서은(세라피나)
차주	안광민(야고보)	홍순익(마르티노)
	안지영(카타리나)	김준영(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가타리나)	이우영(가브리엘) 김수연(율리안나)
차주	김주연(세실리아)	차호섭(요셉) 최선윤(마리아)

애찬 봉사자

금주	최선윤, 신혜경, 정선식, 서정애, 김수연
차주	김시연, 조경희, 이대숙, 김말자, 배복선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드로)
차주	김시연(엘리사벳), 백문주(엘리사벳)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09/08	105명	413불	1,430불
09/15	98명	390불	650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르코린 4,18-

2013년 9월 22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회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말씀은 신앙 선조들의 피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기나긴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이어 온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을 되새기는 가운데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성화해설

서소문(부분)
(하귀분, 2012년, 캔버스에 유채, 개인 소장)

순교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며, 예수님께서 가까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그들도 짊어졌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순교 선열들은 이 세상에 참된 삶과 생명을 일깨우고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모진 고문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많은 이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고,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지혜 3,1-9 < 하느님께서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 나 이 다.

- 제 몸을 막아 주는 큰 바위 저를 살리는 굳은 성채 되소서. 저의 바위 저의 성채는 당신이시니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이끌어 데려가 주소서. ◎
-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당신께서는 저를 구해 주시리이다. 저는 주님만 믿삽나이다. 자비하심에 기뻐 즐거워 하나이다. ◎
- 당신의 종 위에 당신의 얼굴을 빛내어 주시고 자비로우심으로 저를 살려주소서. 당신 얼굴 그느르심으로 사람들 음모에서 그들을 구해 주소서. ◎

제 2 독서 : 로마 8,31-39
<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 루카 9,23-26 <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

세 마

“신앙생활은 순교의 삶이다”



예전 종로거리에는 ‘단성사’라는 유명한 극장이 있었습니다. 이 추억의 거리는 많이 변해 옛날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은 종로3가 소방서와 파출소 앞에 ‘좌포도청 터’라는 표석이 우두커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교구 6대 교구장 리델 주교님께서 옥중 수기를 쓰신 곳이 바로 ‘좌포도청 터’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죄인들을 붙잡아 두었던 곳인데, 천주교 박해시기에 리델 주교님께서도 ‘죄인’으로 잡혀 좌포도청에 수감되었습니다.

1878년 1월 28일, 리델 주교님은 5개월 동안 옥중에 갇혔으나 북경 주재 프랑스 공사의 교섭과 중국 정부의 주선으로 6월 5일 옥에서 풀려나, 7월 12일 만주로 추방되었습니다. 주교님의 회고록을 보면, 130여 년 전 조선 감옥의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델 주교님은 당시 감옥을 ‘지상에 존재하는 지옥의 상(像)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위와 추위, 환기가 안 되는 좁은 공간, 초라한 식사로 인해 건강을 잃는 수감자도 많았습니다.

리델 주교님은 조선 입국을 준비하며 그의 형수 레오니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가슴에 십자가를 지니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조만간 그 십자가를 어깨 위로 짊어지려 합니다. 그 십자가를 늘 제 가슴속 깊이 새겨 간직하며, 조선 백성들 한가운데에 그 십자가를 단단히 심어 그 백성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과 선배 신앙인들이 혹독한 감옥생활을 지내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 평온함 역시 많은 이들의 희생의 대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러두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물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날에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속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은 어쩌면 순교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순교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순교의 삶,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 과거의 순교 못지않게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의 상황을 용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신학교 교수 신부님께서 순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순교할 상황이 닥치면 누가 순교를 할지 배교를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순교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 미약한 우리 인간도 하느님이 도와주시면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순교도 하느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것이 됩니다.

- 서울대교구 허영엽 마티아 신부 -



마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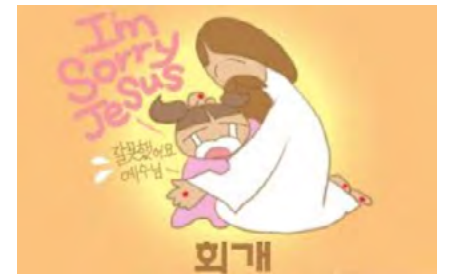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1세기에 활동했던 어떤 랍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랍비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스승의 거듭된 가르침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세상에서 누가 자신이 죽는 날을 알겠습니까?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년이나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랍비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랍비의 이 가르침에서 우리는 두 가지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 언제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고, 보다 중요한 교훈은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에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인생을 자기 자신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줄 착각하고 살다가, 자신도 모르는 때에 죽음이 임하면 아무 준비 없이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인이 하느님이심을 알고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유한한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늘 종말 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며 사는 자는 인생의 목적을 아는 자입니다.

“주님! 인생의 덧없음을 알고 늘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5절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56.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장차 부활하리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 부활의 근원이며 원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1코린 15,20-22). 이 완성을 기다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의 마음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올 세상의 힘을 맛본”(히브 6,5),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생명 안으로 이끌려 갑니다. 이는 그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2코린 5,15).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